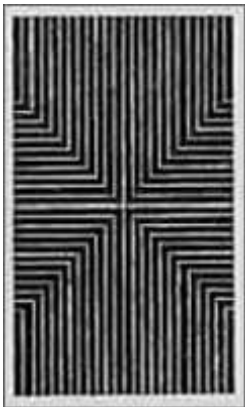
제3강 : 추상표현주의와 스텔라의 입체 회화 I

◆ 1교시 : 프랭크 스텔라

▲ 미니멀리즘의 선구자, 프랭크 스텔라

프로젝션 관계로 어둡게 해서 합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잘 생긴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보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인데요.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5.12)에 의해가지고 미니멀리즘이 시작되는 대목을 미술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대표적인 스텔라의 초기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초기 작품인데 1958~1959년 초에 이르기까지 소위 유명한 미국의 뉴욕 갤러리 <The Museum of Modern Art>(MoMA), 뮤지엄이지요. 미술관에서 '16인의 미국인(Sixteen Americans)'이라는 제목으로 기획했었는데, 그 때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 누구누구가 출품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미술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그림은 프랭크 스텔라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고로 이 그림 비슷한 것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프랭크 스텔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프랭크 스텔라가 쥐고 있는 붓은 흔히 페인트공이 쓰는 붓입니다. 화가들이 쓰는 붓이 아니고, 페인트공이 쓰는 넓적한 붓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에나멜, 흔히 하는 말로 페인트라고 하는,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런데 스텔라의 이 작업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다른 것을 보아야하는데,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조금 나타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띠 그림, 줄무늬, 영어로 '스트라이프stripes'그러는데 미국국기에 스트라이프가 있지요. 줄무늬의 그림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옆에 튀에 나온 부분이 있지요.

그냥 앞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아까 검은 그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캔버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부터 튀어나와 가지고 판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다는 것이, 스텔라를 미술사에 막강한 인물로 남게 만든 대목입니다. 요즘은 흔히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조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제 마누라가 '그림을 그리는 인간'인데, 제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금 튀어나오게 해서.

옆면에도 소위 말해서 측면도 그림이 같이 실려 가지고 앞의 표면과 옆의 측면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되는… 이런 방식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스텔라에

www.artnstudy.com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텔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그림을 발표한 시기는 1958년입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의 시기이냐하면 추상표현주의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 추상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

추상표현주의를 좀 생소하게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요. 추상표현주의는 그야말로 미국그림이 정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미국그림이 전 세계적인 그림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 추상표현주의입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그 뒤로 계속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프랭크 스텔라가 1958년에 이 그림을 내기 시작하면서, 미니멀리즘 그림이 등장하면서, 미니멀리즘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고, 추상표현주의는 약간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에 관한 책을 보면, 거기에 프랭크 스텔라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랭크 스텔라도 한편으로는 추상표현주의 계열의 작가로 분류가 될 수 있고, 특히 아까 예컨대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해 놓으면 추상표현주의인데, 이것을 알고 보면 옆에 뭐가 있다고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 그림입니다. 옆에서 보면 10센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인데, 앞에서만 찍어놓으면 추상표현주의입니다. 그런데 튀어나오게 했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과 추상표현주의에 중간에 있는 인물이고, 주요한 그 후의 미니멀리스트들이 이 그림 스텔라의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추상표현주의는 한물이 갔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앎으로써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화 또는 미술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핵심적으로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늘은 그 정도를 하면 본전을 뽑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www.artnstudy.com

◆ 2교시 : 추상표현주의에서 미니멀리즘으로의 혁신에서 핵심

▲ 미술사에서 추상표현주의 요약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야하는데, 여러분들께 내어준 프린트 물을 보면, 추상표현주의에서 미니멀리즘으로의 혁신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이번 강좌주제가 추상표현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그냥 이름만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지요.

아쉴 고르키(Arshile Gorky), 버넷 뉴먼(Barnett Newman), 윌렘 드 쿠닝(Wilem de kooning),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 마크 로드코(Mark Rothko), 클리포드 스틸(Clifford Still), 아돌프 고틀리브(Adolph Gottlieb),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마크 토비(Mark Tobey) 등의 화가들이 주도한 1940년대에서 1950년대의 미국 미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프랑스쪽에는 엥포르멜(Informel)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엥포르멜 하면, 형태가 없는 이런 뜻이지요? 엥포르멜, 비형태적인, 비형식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것하고 좀 통합니다. 추상표현주의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은 플록인데, 플록이든 누구이든 간에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술사를 간단히 요약을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추상표현주의가 나오게 된 데는 사실상 히틀러의 공헌이 큽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하면서 유럽의 대단한 예술가를 상당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 위대한 작품이라고 일컫는 것을 모아서 불을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히틀러가 자기취향에 맞는 예술품을 갖다가 끌어 모았다는 말도 있고 한데, 히틀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미술가들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좀 많았는데요. '마타(Roberto Matta)'라든지 '마쏭'(Andre Masson)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갔고요. 그런 인물들이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추상표현주의는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피카소의 친화적이면서도 반발하는 이런 데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하면, 미술사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피카소 그러면 입체주의이지요? 큐비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적 큐비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면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면성을 추구하면서 입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참 묘한데요. 한번 볼까요.

▲ 분석적 큐비즘

피카소를 말이지요. 여러분들 입체파 그럴 때는 무엇인가 통나무처럼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www.artnstudy.com

입체파적입니다. 이런 것이 '칸 바일러의 초상' 그래가지고 분석적 그림의 대표적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사람인물 같은 것이 보이지요? 모든 풍경을 이런 식으로, 앞뒤, 옆에서 본 것 같은 것, 뒤에서 본 것 같은 것, 또는 사이에서 본 것 같은 것 등등을 다 잘라서 분석을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칸 바일러의 초상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추상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명암대비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검게 표현되고 여기는 밝게 표현이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를 보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전체적으로 깊이가 있어 보이고 마치 벽돌을 깎아낸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명암대비라는 것은 삼차원적인 tromp'oeil 눈속임이다. 삼차원적인 눈속임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명암대비라고 하는 것이 삼차원적인 눈속임이 들어간다. 원래 회화라는 것은 평면인데 삼차원적인 눈속임을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명암대비는 삼차원적인 눈속임을 갖다가 추구하는데, 그런 삼차원적인 사물들을 막 쪼개가지고 나열을 하다 보니까, 평면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적 큐비즘은 묘하게 좀 이중적입니다.

명암대비라고 하는 것은 삼차원적인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쪼개서 나열을 해 놓으니까 평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방향으로 가지요. 이런 식의 그림들, 이것이 피카소의 분석적 큐비즘 그림입니다.

▲ 종합적 큐비즘

그런가 하면,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쪼개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 큐비즘은 원래 따로 따로 있는 것을 끌어 모아 가지고서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피카소 강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 방금 본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만, 여기에 보면 무슨 책상에 쓰이는 무슨 껍질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있고…이런 것들도 약간 분석적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종이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papier-coller 빠삐에 꼴레, 종이를 갖다 끌어 모을 때, 콜라주라고 하는 것이, 콜라주가 말하자면 조립인데 콜라주를 하는 것이 주로 종합적 큐비즘입니다. 이것은 방금 본 것보다 평면성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냐면, 상당히 피카소의…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딱 보면 큐비즘이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그림입니다. 조각이 아니고… 이렇게 뭉퉁한 느낌이 들면서, 이 부분 이렇게 눈이

www.artnstudy.com

찌그러져 되어 있고 하면 분석적 큐비즘적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사실은 분석적 큐비니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따로 따로 되어있고 분석적큐비즘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입체적이지요. 그러면서 trompe'oeil 소위 말해서 삼차원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피카소는 삼차원적인 눈속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아까 분석적인 그림, 칸바일러의 초상 처음에 보여준 그림, 그 칸바일러의 초상처럼 입체를 쪼개가지고서 나열을 한 것처럼 그래서 평면성을 나타내는 것… 혹은 종합적 큐비니즘의 평면성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카소가 워낙 대단한 인물이라 한 학기를 해도 될 정도인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www.artnstudy.com

◆ 3교시 : 추상표현주의 작품

▲ 추상표현주의 작품의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상표현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경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폴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신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폴록도 결국에는 흩뿌리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평면으로 가져가게 되지요.

그녀늑대

여러분들 이것은 폴록의 다소 초기그림입니다. 1943년도에 그린 것이니까요. 여기에 보면 제목이 그녀와 늑대가 아니고 '그녀늑대(암늑대)'입니다. 늑대인데 로마의 건국신화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상당히 평면성이 많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만 명암대비가 제법 나타나있는 부분이 있지요. 초기작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초현실주의에서 추상표현주의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요. 거기의 중간 인물이 아쉴 고르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쉴 고르키, 대단히 평면적이지요. 여기에 들어있는 문양 같은 것을 보면, 잘 안보이니까 조금 섹시하게 만들어볼까요? 좀 밝아졌지요?

이 형태들을 보면 전부 초현실주의적입니다. 초현실주의의 그림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아쉴 고르키는 초현실주의와 추상표현주의를 연결한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면성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 되냐면, 본래 중요해서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추상표현주의를 대단하게 높게 평가한, 소위 말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미국의 예술계를 장악했던 막강한 비평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인물입니다. 그린버그가 추상표현주의의 그림에서 핵심적인 것을 평면성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평면적인 추상미술의 예

왜 평면성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문제가 오늘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하는데도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평면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평면성은 사실상 마티스(Henri Matisse, 1869.12.31 ~ 1954.11.3)의 그림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마티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피카소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인데요. 야수파라고 하지요.

www.artnstudy.com

여기 마티스의 '붉은 화실'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붉음이 전면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방이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몇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입체적인 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뿐인지 표현은 완전히 평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티스, 고르키,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서 추상표현주의 이런 계열이 말하자면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대체로 그러나 피카소가 워낙 막강해놓으니까, 피카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피카소에 대해 어떻게 대안이 되는 그림을 그릴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티스의 이런 작품, 아까 아쉴 고리키도 당연히 추상표현주의자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추상표현주의자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더 잘 들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삼차원적인 눈속임을 통해가지고, 삼차원적인 눈속임의 그림 중 대표적인 것이, 옛날 그림들은 다 그렇지요. 옛날 그림이 별로 없네요. 하다못해 세잔이라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미술사에 보면 18세기중반에서 19세기 초까지 있었던 신고전주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고전주의라고 할 때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비드, 앵그르인데 특히 앵그르의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자가 침대 같은 데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그림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잘 그렸어요. 완전히 피부를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잘 그려놨어요.

터키탕

특히 앵그르가 그린 '터키탕'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들이 20명 정도 전부 다 발가벗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옛날 그림은 다 말하자면 trompe'oeil 삼차원적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고 있는 다빈치의 그림들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마티스의 그림에 가면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노골적으로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보기로 합니다. 아돌프 고틀리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전혀 입체성을 느낄 수가 없지요. 검은 색조와 붉은 색조의 그 명조대비 때문에 앞뒤로 약간 검은 게 약간 뒤로 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앞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평면적입니다.

이 그림은 칸딘스키의 작품입니다. 칸딘스키의 후기에 가면 기하학적인 도형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칸딘스키의 중기그림은 대단히 즉흥, 평면적인 느낌을 많이 주면서 추상적인 것이 있지요. 여러분들 추상화의 시발점은 아까 본 피카소의 분석적 큐비즘과 칸딘스키의 이런 그림들입니다. 정식으로서의 추상주의의 출발은 칸딘스키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www.artnstudy.com

특히 여기에서 보면 추상화라고 하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색조와 형태들만 있는… 이것도 마티스, 칸딘스키도 이런 그림에서도 벌써 평면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합니다. 칸딘스키의 방금 그 그림은 1913년도 그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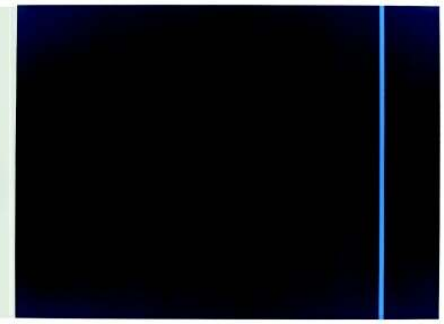
1946년도 폴록그림을 보면 미안하지만 칼라를 못 가져오고 흑백입니다. 흑백이나 칼라나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꿈틀꿈틀하면서 약간 질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평면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폴록이 천재라고 되지요.

이것은 호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폼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평면적이지요? 이미 호프만의 그림, 1959년도에 59년까지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윌렘 드 쿠닝, 이것은 색조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책에 있는 것을 그냥 하다 보니까, 보통 추상표현주의라고 할 때는 윌렘 드 쿠닝 그림이 가장 덜 추상적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지 않지요? 추상 여자그림인데 여자를 대단히 억세고 악마적인 어떤 형태로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평면적인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 가져왔는데 실제로 막강한 인물은 클리포드 스틸이라는 인물입니다. 클리포드 스틸의 그림은 그냥 이렇게 검은 색조가 비쭉비쭉 내려오고요. 또 그사이로 붉은 색조가 비쭉비쭉 올라가고, 검은색조가 내려오고 하면서, 지그재그톱날처럼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저번에 호암미술관에서 한번 전시를 했는데, 호암미술관에 가면 천장이 높거든요.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뜨려 놓은 그림이 있는데, 정말 막강합니다.

로드코 그림도 막강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평면적이면서 로드코같은 경우는 색체 자체, 그다음에 조금 유명한 인물, 주도적인 인물이 버넷 뉴먼이라는 인물인데, 뉴먼은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빨갛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흰줄만 하나 있습니다. 딱 보면 "나도 그것 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래 놓고는 제목을 존재 이렇게 해 놓았어요.



버넷 뉴먼의 작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가하면 옆으로 조금 넓혀가지고서 초록색을 해놓고, 약간 두터운 노란색줄, 적당히 얇은 하얀 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야말로 뉴먼의 그림은 그 자체로 평면 자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우리로서는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입장을, 분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www.artnstudy.com

◆ 4교시 : 20세기 미술 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

▲ 회화의 본질을 찾아서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평론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모더니즘 회화의 옹호자로 유명한데요. 그가 쓴 미국형 회화라는 글이 있는데요. 1955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미국형 회화라는 글에서, 매체의 생존에 꼭 필요치 않은 인습들이 발견되는 즉시 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모더니즘의 법칙으로 내세웁니다.

쓸데없는 매체의 생존에 꼭 필요치 않는 인습, 이때의 매체는 회화면 회화, 조각이면 조각, 영화이면 영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텔레비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체는 미디엄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때 매체는 특히 회화를 말합니다. 특히 회화가 생존하는데 필요치 않은 인습들은 즉시 버려 버린다. 회화라고만 일컬어질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회화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화의 본질에까지 환원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입장을 모더니즘, 본질주의, 환원주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로 환원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보통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풍경을 그리면 풍경이 주체가 되지요.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이야기는 풍경을 주체로 삼는 것은 회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인물을 그릴 수도 있고,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 무슨 신적인 것을, 독일 표현주의자들처럼 사회적인 무엇을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요? 회화가 무엇을 그리느냐 하는 것이 풍경이냐? 인물이냐? 정물이냐? 이런 것들은 회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화의 본질은 무엇이냐?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회화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결국 그 본질은 바로 평면성입니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이른바 추상표현주의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 중심 없는 회화

미국형회화에서 추상표현주의가 이룬 특징으로서 명도대비를 거부하는 것, 전면성 all over painting 라고 해서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이 전체가 다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폴록그림을 한 번 봅시다. 희미하게 빛나는 물질,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까?

어디를 잡아도 비슷한 것 같지요?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중심이 있는 것을 볼까요. 이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지요. 주변의 이것은 배경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중심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폴록 그림은 방금 본 것과 다

www.artnstudy.com

르지요?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ll over painting은 무한한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가 이 면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도 빠져나갈 것 같은, 연결될 것 같은… 지금 흰색을 잘라 나서 그렇지… (이것을 자르는 방법이 없나… 포토샵을 전혀 몰라서 통과합니다.) 이렇게만 봅시다.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지금 무엇이 움직이지요. 이렇게만 잘라서 그림을 표현한 것은 화면바깥으로 이것이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즉 외화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진에도 그렇고 영화에도 그렇고, 원래 외화면이 사진과 영화에는 강합니다. 그림은 원래 외화면이 약해요. 약하다는 말은, 저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저기의 그림을 보면 책상모서리가 잘렸지요? 책상모서리가 잘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은 저 그림 자체로 완결된 느낌을 갖습니다. 그림은 테두리가… 프레임이지요? 그림은 프레임이 강도가 높아요. 그 이야기는 바깥과 안을 자르는 힘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진은 그것이 약해요. 영화도 그것이 강해요. 이런 그림은 그러나 all over painting 은 프레임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왜 무한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미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1600년도에 누가 죽었느냐면, 부르노라고 하는 막강한 천문학자이자 철학자가 죽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전에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브루노가 화형당한 1600년을 르네상스가 끝나고 바로크예술이 시작하는 기점으로 잡습니다. 1600년을 그 때 핵심적인 사건이 브루노의 화형인데요. 이 브루노가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다가 죽었어요. 왜 무한하다고 해서 죽었느냐?

우주가 무한하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세 천문학 또는 신학을 지지하고 있던 지구중심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 지구중심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ll over painting 은 중심이 없다. 그래서 무한성을 느끼게끔 해준다.

▲ 그림의 크기와 그림의 내용

그 다음에 대형캔버스, 이 대형캔버스는 여러분들 이 그림들이… 보통 추상표현주의의 그림들은 예사로 4미터, 5미터 이렇습니다. 클리포드 스틸의 그 그림은 길이가 아까 그것은 10미터쯤 됩니다. 거의 호암미술관을 저 꼭대기에서부터 끝에까지 장악을 했으니까요. 10미터쯤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멕시코의 벽화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간단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만한 그림을 그리면서 안에 그냥 노랗게만 해 놓았다. 그러면 작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노란색만 칠

www.artnstudy.com

해 놓았는데, 그것을 4미터, 5미터 크게 해서 갖다 놓으면 작품이 됩니다. 작은 그림일수록 그 속이 미세하고 복잡해야 되요. 이것이 묘해요.

작은 그림을 노랗게 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만 하면 작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스무개를 만들어 배열을 하면 작품이 됩니다. 그렇지요? 조그마한 그림도… 여러분들 강익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일주아트센트에 가면 강익중이라는… 조그마한 그림 하나에… 뉴욕에서 돈이 없어서 조그마한 나무판자를 오려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리고 했는데 일주아트에 붙어있는 게 만개 가까이. 몇 천개 되는 것을 쫙 붙여놓으니까 그게 작품이에요. 하나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처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해서….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추상표현주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면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뉴먼 그림 볼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해요. 예사로 3미터 4미터… 우리의 시선을 시야를 탁 가로막는 방식으로 압도해 들어온다.

압도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이론을 보면 칸트의 숭고미, 수학적 숭고미와 직결됩니다. 큰 것은 우리에게 숭고한 느낌을 주면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왜소하게 느끼게 만들고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일상적인 크기의, 말하자면 스케일, 척도로써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것입니다.

▲ 평면성

그 다음에 마지막 평면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평면성인데 왜냐하면 그는 그 뒤 십년 뒤에 쓴 '모더니스트 회화'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엄청나게 중요한 글인데요.

'모더니스트 회화'라는 글에서 드디어 평면성을 회화예술 모더니즘의 핵심기반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화예술이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그 스스로를 비판하고 정의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화면구조의 평면성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점이었다.

여러분들 모더니즘 그러는데, 참고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이론은 칸트에 연유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칸트의 무엇에 연유하느냐? 칸트의 비판 작업을 회화에 적용한 것이 그린버그입니다. 그린버그는 칸트주의자인데요. 칸트의 제일 유명한 책이 『순수이성비판』이지요?

순수이성비판을 할 때에 무엇을 동원했냐면 칸트가 이성을 동원했어요. 칸트가 이성을 동원해서 이성을 비판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성으로 하려는 데에 있어서, 이성의 한계가 무엇이며, 이성이 자기 자신, 이성자신에 대해서 이성의 한계가 무엇이고 이성의 조

www.artnstudy.com

건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회화에다가 적응합니다. 회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회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회화를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그림을 그린다. 모든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요. 무엇을 그리느냐? 그림 자체를 그린다. 무엇인가 다른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림 자체를 그린다.

그러면 그림 자체를 그린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그림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이겁니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화가 스스로 그림 자체에 대해서 그림의 한계와 그림의 정의와 정체성 혹은 자기그림의 정체성, 그것을 갖다가 의식적이든 무의시적이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그것은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스트 화가로 제일 먼저 꼽는 게 마네(Claude Monet, 1840~1926)입니다.

▲ 모더니스트 화가, 마네

마네의 무엇을 가지고 모더니스트라고 그린버그가 했을까요? 그것도 그린버그의 이야기입니다. 마네를 모더니즘 현대예술의 시발로 꼽는 것도 그린버그 때문인데요. 그린버그는 마네가 평면성을 최초로 의식하고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양감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신고전주의에서 양감이 잘 들어난다. 엥그르 이런 그림에서. 신고전주의의 직후가 사실주의라고 해가지고 마네와 쿠르베입니다.

마네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사이에 있는 인물이지요. 쿠르베, 마네. 쿠르베는 인상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쿠르베는 평면적으로 그린 것도 아니에요. 마네는 그러나 평면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얼굴을 그릴 때도 코도… 여러분 마네그림을 한번 보세요. 코가 좀 납작합니다. 얼굴이 양감이 없이 평퍼짐한 얼굴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어 가지고 마네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상주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냐면 인상주의에서는 마네보다 평면성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데요. 그것은 인상주의에서는 입체성, 물체성이 날아가 버립니다. 세잔이 인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시 복구시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그 물체성, 입체성입니다. 인상주의가 날려버린 물체성, 복구성을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것을 본 뜬 화파가 입체주의이다. 그 말입니다. 세잔의 입체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을 본격화시킨 인물들이 입체파 브라크, 피카소, 레제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으로 가면은 특히 여러분들 모네가 막판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림이 하도 비싼 값에 팔려서 1890년대 후반에 가면 돈을 벌어서 자기 집에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연못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목조다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그림을 그렸어요. 수련도 키

www.artnstudy.com

우고 해가지고…그런데 말년의 모네 그림을 보면 거의 추상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평면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린버그가 마네에서부터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극단화되어 나타난 것이 추상표현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서 모더니즘 회화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즉 평면성만이, 1페이지 한 중간을 보시면, 즉 평면성만이 회화예술에서 특유하게 독자적이라는 것이었다. 화면 구조의 닫혀진 형태는 회화예술이 무대 예술과 공통으로 지니는 하나의 제한적 조건이요, 기준이다. 그러니까 무대예술, 연극, 오페라 이런 것들 무대예술 아닙니까? 무용도 무대예술이지요.

여러분들 연극은 주로 닫혀진 공간을 사용합니다. 영화 하고 다른 것이 그 것입니다. 영화는 열린 공간, 영화중에서 연극적인 것들은 연극대본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어둠속에서 벨이 울릴 때' 같은 영화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갑갑해요. 왜냐하면 장면이 똑같아요. 똑같은 실내장면에서 계속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연극적이에요. 그래서 연극은 폐쇄된 공간이 딱 있어요. 그런 것은… 그림도 폐쇄되어있어요. 공간의 폐쇄성 이런 것은 무대예술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화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색채는 무대예술에서뿐 아니라 조각에도 공통되는 하나의 기준 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조각에서 어떻게 색채가 나오느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색채는 옛날 조각품들 보면 거기에 색깔을 실제로 많이 칠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조각 자체가 색감을 지닌 것도 있지요.

평면, 그 2차원성은 회화 예술이 어떤 다른 예술과도 공유할 수 없는 유일한 조건이며, 따라서 모더니스트 회화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평면성 그 자체로 향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평면성에 대한…. 즉 회화가 자기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반성을 해서 그 반성된 내용의 결론인 평면성을 그림에다가 표현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현적 묘사의 포기

그 다음에 모더니스트 회화가 최종적 단계에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의 재현적인 묘사를 포기했던 점은, 재현적 묘사가 무엇이지요? 재현적 묘사는 밖의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주의 같은 것, 재현주의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모더니즘회화가 재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추상적 묘사로 가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린버그의 이야기는 재현적 묘사를 포기하게 된 것은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특징이

www.artnstudy.com

아니라는 거예요. 모더니스트 회화가 원칙상 단념한 것은 지각 가능한 3차원적 물체들이 담겨질 수 있는 종류의 공간(3차원적인 눈속임)에 대한 재현적 묘사이다. 3차원적 물체들이 담겨질 수 있는 종류의 공간의 재현적 묘사. 아까 trompe'oeil 그랬지요? 눈속임? 여러분들 유명한 것 있지요. 담징의 벽화가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새가 날아와서 박치기를 했다는…

고대 그리스 그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우시스와 다른 유명한 그 당시의 막강한 화가가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렸나 해서 그렸는데, 제우시스가 그린 그림에 새가 날아 왔다는 거지요. 담징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Trompe'oeil 동물의 눈까지도 속일 수 있다. 삼차원적인 공간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포기한 것이 모더니즘이다. 왜? 삼차원적인 것은 회화자체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지요? 조각이다. 조각은 삼차원적이잖아요. 또 건축도 물론 삼차원적이다. 그렇게 해서 평면성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에 1965년도에 미니멀리즘의 막강한 이론가인 도널드 저드(Donald Judd)가 명료한 대상들(Specific Objects) 이 specific objects를 '특별한', '특수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명료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료한 대상들'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미니멀리스트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www.artnstudy.com

◆ 5교시 : 주요 미니멀리스트들

▲ 주요 미니멀리스트의 소개

여러분들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프랭크 스텔라. 1936년생이고요. 칼 안드레(Carl Andre, 1935. 9. 16)는 1935년생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니멀리스트 중에서 가장 미니멀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 안드레가 나이가 한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프랭크 스텔라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인데, 이것은 참고로 75년도에 작업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한 겁니다. 색깔을 넣어 가지고…

이것이 MOMA에서 작업을 한 것, 전시회 하고 있는 것을 찍은 것인데요. 지금 보이지요. 이 전시를 보고 칼 안드레가 프랭크 스텔라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프랭크 스텔라에 대해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널드 저드. 1928년생.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솔 르윗과 나이가 같은데, 도널드 저드는 그야말로 그린버그하고, 그리고 그린버그의 제자뻘이 되는 마이클 프리드라는 인물이 있는데 마이클 프리드와 도널드 저드가 대대적으로 싸움을 붙습니다. 도널드 저드는 그린버그를 공격한 것이지만 결국은 마이클 프리드가 도널드 저드를 역공을 하기 시작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할 것인데요. 도널드 저드는 그야말로 철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인물인데, 여러분들 철학공부를 하면 똑똑합니다.(웃음) 그래서 글을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널드 저드는 작품도 물론 미니멀리즘, 공격적인 미니멀리즘 작품을 제일 먼저 시도한 인물입니다. 스텔라 이후에.

그 다음에 솔 르윗(Sol LeWitte, 1928~2007), 솔 르윗은 참 묘한 인물인데요. 솔 르윗은 도널드 저드가 나중에 싫어하기도 하는데 개념미술도 창안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선구적 인물이고, 이 미니멀아트에서도 선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양다리걸치기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모리스, 모리스는 다음 주에 작품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밑의 안느 트루잇, 안느 트루잇은 그냥 뭉텅거려가지고 하나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다음에 댄 플레빈은 형광등을 많이 써가지고 형광등작품을 하는 인물인데요. 로버트 스미드슨도 대지미술을 창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로버트 스미드슨은 그 유명한 유타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조금 쉬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기 직전에, 이런 프랭크 스텔라의 이 작품하고, 한편으로 보면 평면적인데 앞에 튀어나왔다는 것, 이것과 그린버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했던 그야말로 평면성 모더니즘의 평면성 그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널드 저드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